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21억원 투입

고창군이 올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저수지, 농로, 배수로 등) 정비사업에 221억원을 투자해 영농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증산제 등 9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가뭄대비 재해대책사업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등이다.

군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영농기 이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4개 로타리클럽, 식도
피해 주민 이동식 주택 지원

부안군 국제로타리 3670지구 산하 4개 클럽(서해, 해당화, 부안, 변산 로타리클럽)은 지난 1월 13일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 피해를 입은 위도면 식도리 화재피해 주민에게 이동식 주택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종권 부안서해로타리클럽회장, 김재희 부안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강성만 변산로타리클럽회장, 박영숙 해당화로타리클럽 회장, 이봉로 부안로타리클럽 회장과 부안군청 김정초 행정복지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따뜻한 보급자리를 제공받은 가정에 축하를 전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위도면 식도리는 섬지역의 특성상 화재 발생 당시에도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어려운 지리적 여건 속에서 이번 주택 설치 지원을 위해 각 클럽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이번 지원이 이뤄졌다.

/부안=김석진기자

'대한민국 고창시대' 를 향해

'정읍형 푸드플랜' 박차

유기상 군수 저자사인회 약 3000여명 몰려 대성황

유기상 고창군수의 일곱 번째 저서 '유기상과 함께 한번 더 높은 고창' 저자사인회가 지난달 26일 고창 하나로마트 2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저자가 단상에서 관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기존의 출판기념회와는 달리 도서 내용이 담긴 사진과 축하영상도 둘러보며, 구입한 도서에 저자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는 위킴스루 방식의 새로운 진행이 라며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저자사인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유상열 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군민들이 연인원 3,000여 명이 넘게 유기상 군수의 출판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하였다.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운천 현 국회의원, 김승수 현 국회의원, 김수홍



현 국회의원, 김승수 현 전주시장, 황숙주 현 순창군수, 김중진 현 aT사장, 구동현 현 산업은행 캐피탈 사장, 김경섭 전 통계청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권운현 전 여성가족부차관,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차관, 허태웅 전 농촌진흥청장, 김중진 전 문화재청장, 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재영 한신대 교수, 김경선 서울대 교수, 김광중 고창체경향우회장 등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통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전 국무총리는 영상축하 메시지를 통해 "유 군수의 치열했던 4년의 군정과 고창군의 비전이 이 책에

담겼다. 군수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두루 경험했다.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고창의 30년 숙원아젠다를 대고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결정지었다. 고창군 예산 7천억 시대도 처음 열었다."라고 응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축전을 통해 "우리 유기상 군수가 걸어온 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총리 시절 노을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유 군수의 열정을 직접 지켜봤다. 그간 섬김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향해 달려온 유기상 군수가 이제 고창의 더 큰 비상을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됐다. 유기상 군수와 고창군민 여러분의 건설과 행복을 기원한다." 전했다.

한편 행사담당자는 "사회환경으로 많이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준비했으나, 오전 08시부터 진행된 사인회 행사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 행사 시간 내내 줄이 끊이지 않아 행사장인 하나로마트 주변은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참석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마감 시간이 5시가 넘어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미처 사인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참석자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시는 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푸드플랜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유진섭 시장과 시의회 의원, 관계기관, 농업, 로컬푸드 관계자, 생산자, 유통업체, 푸드플랜 TF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푸드플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를 시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가에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을 제공하는 한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바른 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이다.

시는 지역 먹거리 여건, 이슈와 정책에 부합하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용역보고회와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 등을 시행했다. 또 차례의 최종보고회에서는 구체적인 푸드플랜 비전과 전략 수립,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방향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내었다.

또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행복한 정향먹거리(바른 먹거리, 밝은 먹거리, 따뜻한 먹거리, 공감 먹거리, 특화 먹거리)'라는 비전 제시와 핵심 전략 세부 추진사업, 예산 투자 등을 제시했다.

시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고창군이 2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경찰청 김현익 형사과장과 NH농협은행 익산중앙지점 진기영 지점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

김현익 형사과장은 지난해 고창경찰서장으로 부임 후 전체 군민(2만9000세대)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서한문을 배부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대응에 총력을 펼쳐왔다.

또 골목길, 공원 내 야간 통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가로등 22개, 여성 안심 비상벨 3대, CCTV 2대 등을 설치해 지난해 112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2.6%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진기영 지점장은 부임기간 동안 농

가에 실익이 되는 26개의 약 153억원에 상당하는 사업을 펼친 약 95억원의 농가 소득 기여효과를 창출했다.

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고창군 농촌영화제 추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고창군의 품격있는 문화·관광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장학금 기탁과 소외계층을 지속 지원하여 '고창군 명예의 전당' 이웃돕기 분야 헌정 대상자에 선정되었다.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고창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이들을 통해 고창을 홍보하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출판기념회 '성료'

30여년의 정치 인생과 철학, 도전·비전 등 담야

유진섭 정읍시장이 3월 1일 오후 연지아트홀에서 '살맛나는 정읍, 유진섭의 진심'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유 시장의 저서 '살맛나는 정읍, 유진섭의 진심'은 그의 30여 년의 정치 인생과 철학, 도전과 비전 등을 담았다.

유 시장은 "지금까지 정치에 몸담으며 출몰 지켜온 생각은 권력을 얻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할 권한을 가지는 일이었다"며 "지난 3년 6개월동안 시장으로서 정읍의 미래에 대해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노력한 흔적들을 담았다"고 책을 소개했다.

더불어 유 시장은 '천 만 관광객 유치, 연수도시 특화, 균형 있는 정읍 발전' 등의 청사진도 제시하면서 정읍시민의 도움을 호소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강광 전 정읍시장은 "유진섭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시정을 펼치면서 절대 불의에 참지 못하는



유진섭 정읍시장이 3월 1일 오후 연지아트홀에서 '살맛나는 정읍, 유진섭의 진심'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면서 유 시장의 품성을 칭찬했다.

유성열 전 국회의원도 "유진섭 시장에 대해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읍 찾아 관광하고 돈을 쓰도록 기반시설 등을 시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한 뒤

유진섭 시장의 진심을 강조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유진섭 시장의 진심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우리 정읍시민들이 잘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 발간

정읍시의 올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한 권으로 정리한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가 발간됐다.

안내 책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시는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는 설명회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의 기업지원 시

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등 시책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지역 내 중소기업 310여 곳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책자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와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경영안정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업체당 3억 원 이내(연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이고, 이차보전은 2%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균분 상환(8회)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